

아킬레스 동종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 임상적 결과와 운동력 회복 평가

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전철홍 · 하대호 · 김동철 · 신호식

목 적

전방 십자인대는 슬관절의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최근에는 스포츠 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을 증가하고 있다. 아마추어로 운동중에 손상당한 후 아킬레스 동종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후 임상적 결과와 운동력 회복 정도를 조사하였다.

대상 및 방법

5년 이상 스포츠 활동을 한 아마추어로 1주일에 3회 이상 1회에 2시간 이상 운동을 하였던 환자에서 아킬레스 동종건을 이용하여 관절경하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환자 중 1년이상 추시가 가능한 56명에 대하여 외상전의 스포츠 활동으로의 회복여부를 주관적, 객관적 지표, Telos stress arthrometer, Modified Feagin Scoring System, Tegner activity Score를 이용해 분석하였다. 평균연령은 25세(18~49세), 평균 추시 기간은 15개월(12개월~19개월)이었다. 손상시 운동은 축구가 29명, 농구 14명, 배드민턴 5명, 테니스 3명, 스쿼시 2명, 기타 3명이었다. 술후 보조기 착용과 함께 대퇴 사두근 및 슬근 강화 운동을, 2주부터는 부분적인 체중 부하를, 6주부터는 완전 체중 부하를 12주후에는 일상 생활을 허용하였고, 24주후부터 스포츠 활동을 점진적으로 시작하여 1년후에 외상전의 스포츠 활동을 허용하였다.

결 과

Lysholm Knee Score는 술 전 60점에서 88.2으로, Telos arthrometer를 이용한 스트레스 사진상 술 전 7.1mm에서 술 후 2.3mm로 향상된 결과 보였다. Modified Feagin Scoring System상 양호 이상이 52례(88.1%)이었다. 운동력은 외상전의 스포츠 활동으로의 회복정도 평가는 Tegner 6 단계인 레크레이션 스포츠가 가능한 12명, Tegner 5단계 20명, Tegner 4단계 20명, Tegner 3단계 2명이었다.

결론

아킬레스 동종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후 임상적 결과 및 운동력의 회복은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. 그러나 아직은 외상전의 스포츠 활동으로의 복귀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정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간의 추시 관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